

인도문화의 이중적 여성상과 힌두 여신 상징체계

류 경희*

- I. 종교와 여성연구
- II. 인도문화의 이중적 여성상
- III. 힌두 여신 상징체계의 이원성
- IV. 힌두 여신 상징과 여성의 지위
- V. 여신상징의 재해석을 통한 새로운 모색

I. 종교와 여성연구

종교를 통해 여성을 연구하려는 시도는 서구 여성신학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여성연구는 종교연구의 여타 접근법들과는 달리, 주요 분석범주로 性(젠더)을 사용한다는데 그 독특성이 있다. 즉 종교적 삶과 사상에서 성별이 어떻게 기능해 왔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에 나타나는 여성의 이미지와 지위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규정하는 문화적 패턴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여성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종교가 제시하는 여성상이 여성들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자기 정체성을 형성시키므로써 여성의 지위를 규정해 왔다는 것이다.¹⁾

그런데 이들 연구는 주로 여성을 억압하는 지배구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이면의 믿음체계 예컨대 남성 지배체계인 가부장제를 뒷받침 해주는 이념적 구조를 밝히는 일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정 문화와 사회가 지니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지배적인 가치체계는 흔히 그 문화의 전통적인 종교이념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 문화의 종교상징체계가 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과 실제 여성

* 서울대학교 강사

1) M. Eliade, ed., *The Encyclopedie of Religion*(New York: Macmillan and Free Press, 1987) vol. 15, 433-35쪽.

삶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일은 중요하다. 따라서 종교교리가 여성의 규범적 이상을 구체화시키고 그것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겠다.²⁾ 또한 지금까지의 여성연구가 종교와 여성의 관계를 주로 서구 여성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왔기 때문에 종교문화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인식되면서 최근에는 연구 범위를 세계 주요종교들에까지 확대시키는 교차문화적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³⁾

이와 관련하여 인도는 여성연구에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지역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과 여성상은 사회적 산물일 뿐만 아니라 종교관념과도 깊이 관련되는데 그 문화적 독특성이 주로 종교와 밀접히 관련되는 인도의 경우는 이러한 측면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문명만큼 여신숭배를 정교하게 발전시킨 문명이 없다고 주장될 정도로 주요 종교인 힌두교가 풍부한 여신신앙 전통을 지닌다는 점에서 인도는 여성학적 분석을 위한 풍부한 저장고라고 할 수 있다.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인도문화의 전통적인 여성상과 힌두 여신상징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여성에 대한 인도문화의 이중적인 인식과 그것이 인도여성의 삶과 지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도문화의 이중적 여성상

전통적으로, 인도여성의 지위를 규정해온 몇 가지 주요한 사회문화적 요인들로는 지역, 종교, 계층, 친족체계 그리고 역사 시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이 복

2) Seemanthini Niranjana, *Symbolic Meaning and Rural Social Structure : A Sociological Study of the Construction of Feminity* (Bangalore Univ., Depatt. of Sociology Ph.D. Thesis, 1992), 252-54쪽.

3) 80년대말 이후 교차문화적인 관점에서 여성과 종교의 관계를 다루는 저서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들어 Arvind Sharma가 편집한 *Women in World Religions*(1987), *Todays Woman in World Religions*(1994) 등은 세계 주요 종교에서 여성의 역할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외에도 세계종교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들(P. Cooey, W. Eakin, J. MacDaniel, *After Patriarchy : Feminist Transformations of the World Religions*(1991))과 불교, 힌두교, 이슬람 같은 주요 세계종교 전통의 여성학자들의 분석적 연구들도 출판되고 있다(이슬람의 Fatima Mernissi, Riffat Hassan, 힌두교의 Lina Gupta 등). Rita M. Gross, *Feminism and Religion*(Boston: Beacon Press, 1996), 57쪽 참조

4) Rita M. Gross, 같은 책, 133쪽.

합적인 상호관계를 지니고 있고 또 시기나 계층 그리고 지역과 종파에 따라 여성 지위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도의 여성상을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인도에서 지배적인 종교인 힌두교가 여성의 본성과 역할을 규정하고 여성 지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힌두 여성상에 국한시키고자 한다.⁵⁾

여성에 대한 인도인들의 관점과 태도는 외부인의 눈에는 모순적으로 보인다. 그것은 힌두 여성상이 여성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태도를 결합하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문화에는, 여성은 오염적인 존재로 인식해서 남성에 비해 제의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관점과 여성원리가 우주의 창조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신성시하여 신격화시키는 관점이 모순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힌두여성은 이중적 이미지 즉 처녀가 淨潔한 존재인가 하면 월경과 출산 중의 여성은 不淨한 존재이고 순종적인 아내가 이로운 동반자라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나 과부 또는 관능적인 여성은 파괴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인식된다. 또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어머니는 자애로운 존재이나 독립성이 강한 경우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⁶⁾ 인도에서는 이러한 이중적 여성상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부족이나 지역 그리고 종파나 시대에 따른 차이가 없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인도사회는 기원전 15세기 무렵 가부장적 성격의 아리아족이 인도로 들어와 정착해온 이래 남성우월사회를 유지해 왔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여 여성에게 많은 제약을 부여했고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가정에 국한시켰다. 따라서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봉사하는 아내의 역할이 이상적인 여성의 역할로 강조되고 자녀의 생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역할도 중시되었다. 특히 여성의 열등한 지위는 대표적인 힌두 율법서인 『마누법전』에서 종합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마누법전』(9.3 또는 5. 148)에 보면 여성은 딸로서는 아버지에게 부인으로서는 남편에게 그리고 과부로서는 아들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결코 독립적일 수 없는 존재로

5) 힌두교의 경우도 대중 힌두교와 정통 힌두교에 따라 차이가 나고 또 종파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서 박띠 종파나 밀교 종파 등은 의례면에서 여성에게 보다 큰 역할을 부여하고 보다 많은 자유와 평등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운동들이 실제로 힌두 여성의 사회적地位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만한 증거는 아주 적다.

6) 이러한 인도 여성상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학자들도 언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로는 수잔 웨들리를 꼽을 수 있다. Susan Wadley, "Women and Hindu Tradition", R. Ghadially, ed., *Women in Indian Society* (New Dehli: Sage Publication, 1996, 초판 1988), 23쪽 참조.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개념의 이념적 근거는 남녀의 본성에 대한 몇 가지 전제와 믿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성은 의례적으로 순수하고 신체적으로 강하며 정서적으로 성숙한 반면에 여성은 의례적으로 오염되기 쉽고 신체적으로 약하며 성적으로 위험하고 의지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⁷⁾ 이러한 여성개념에 근거하여 여성은 다르 마샤스뜨라 같은 힌두 율법서에서 출신계층과는 무관하게 카스트의 최하위계층인 수드라 계층과 동일하게 규정되었다(마누법전, 11. 153). 따라서 인도문화는 여성을 남성이 지속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존재로 인식해 왔고 결혼제도는 이러한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회 관습면에서도 이러한 여성관념에 토대를 두는 여성 억압적인 관행들이 나타나서 인도여성들의 삶의 조건은 대체로 매우 열악한 것이었다. 남아출산을 결혼의 주요목적으로 믿어서 여성을 단순한 재생산의 도구로 인식했고 결혼한 여성을 재산으로 취급했다.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나 신으로 간주된 반면에 여성에게는 가정 내에서의 아내와 어머니 역할만을 강조하므로써 여성의 활동영역을 가정으로 국한시켰다. 그리고 유아결혼 관습과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의 박탈은 여성은 무지한 계층으로 남아 있게 했다. 남편이 사망하면 그 부인이 자신의 정절을 지키지 못해 가문을 오염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과부를 생화장하는 사띠(Sati) 관습과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는 관행으로 여성이 당하는 고통은 혹독한 것이었다. 사띠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신부 지참금 제도인 다우리는 지금도 신부의 살인과 자살을 초래하고 있을 만큼 인도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⁸⁾ 그런가하면 대다수 인도여성은 빈곤과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가사노동 등으로 이중적인 고통을 안고 있다. 인도여성이 겪어온 열악한 지위와 억압적인 삶은 모든 사회와 문명에서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인도만큼 불평등한 나라는 없었다고 지적될 정도이다.⁹⁾

인도여성의 이러한 열악한 삶의 조건은, 여성운동가나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처럼,

7) 로밀라타파는 여성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여성을 오염과 관련짓는 제의적 이유 외에도 생산과 관련한 여성의 중심적인 역할에 대한 두려움과도 관련된다고 지적한다. Romila Thapar, "Looking Back in History", Devaki Jain, ed., *Indian Women*(New Delhi : Patila House, 1976), 10쪽.

8) 한 조사에 의하면 1981년에서 1982년 사이에 멜리에서 발생한 비자연사한 여성들 가운데 12%가 다해즈 관련 사망자이고 마하라스트라주의 경우, 1984년에서 1985년 사이에 사망자가 64%나 증가했다. 뿐만아니라 이 관습의 폐해는 여아살해나 이의 변형된 형태인 여아낙태수술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인도정부는 이 관습을 법률적으로 금지하지 못하고 그 규모를 제한하는데 그치고 있다.

9) Devaki Jain, ed., 앞의 책, 50쪽.

남성 지배이데올로기에 토대를 두는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억압과 차별을 드러내주는 한 예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캐롤린 라마자노글루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으로 표현하며 무엇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지배이념은 권력계층의 이해와 밀접히 연관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남성의 여성지배는 이념의 차원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주장한다.¹⁰⁾ 인도의 경우는, 고대 이래로 아리아인들이 주도적으로 형성시켜온 고대 힌두종교인 브라흐만교의 남성 중심적인 여성개념이 여성의 억압적 상황에 영향을 미친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인도문화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와는 상반되는 여성에 대한 또 다른 관점과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인도문화에서 지배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중심적인 역할과 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또 다른 주요 흐름으로 면면히 유지되어 왔다. 이는 특히 상징체계에서 두드러지는데, 여신신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신승배는 고대문명에서 한때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다가 대부분의 발전된 종교들에서 그 중요성이 상실되었다. 그러나 힌두교에서는 고대 이래로 지속되어 왔고 현재도 힌두교의 주요한 신앙형태로 대중적인 인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여신신앙의 지속성과 대중성은 인도문화가 유지해온 여성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드러내 준다. 힌두교의 여신신앙에서, 여신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최소한 남신들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원리가 우주의 활동적인 창조력이자 창조원리로서 신격화되고 여성이 우주의 창조와 질서유지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인도인들은 여성의 열등성에 대한 관념들을 체계화시켜온 한편 여신으로서의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온 것이다. 여기서 여성에 대한 힌두 심성의 복합성과 이중성을 읽을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이 도전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 속에서도 이중적 여성상은 여전히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이중적 여성개념이 힌두 여신상징체계에서 어떻게 상징화되어 나타나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10) 캐롤린 라마자노글루, 김정선 옮김,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서울: 문예출판사, 1997), 233-34쪽.

III. 힌두 여신 상징체계의 이원성

1. 힌두 여신 상징체계와 이중적 여성상

여기서는 앞서 다룬 인도인의 이중적 여성상과 그 이면에서 작용하는 종교적 이념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힌두 여신상징체계를 다루려고 한다. 특정 문화에서 개념화된 여신의 속성에는 그 문화의 여성 개념과 본질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신의 속성을 분석하는 일이 여성의 문화적 정의, 또는 여성의 본성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힌두 여신 상징체계가 남녀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힌두 사유를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교 상징체계란 점도 고려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힌두 이데올로기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힌두 여신을 구분하는 두 범주 즉 남신들과 정통방식으로 결혼하여 배우자가 된 정통화된 여신(배우자 여신)과 결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독립성을 강하게 띠는 비정통 여신(독립적 여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¹¹⁾ 이 두 범주의 여신은 엄격히 구분된다기 보다는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중적인 여신 상징체계는 힌두교를 형성해온 두 주요전통 즉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남성 엘리트 중심의 정통 힌두전통(브라흐만교)과 여성원리나 역할의 동등성 내지는 우월성을 주장하는 대중적인 여신신앙 전통을 대변해 준다.

앞서 여성에 대한 힌두 관점이 여성을 오염적인 존재로 인식해서 남성에 비해 제외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가 낮은,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규정하는가 하면 여성원리가 우주의 창조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성을 신격화시키는 관점이 이중적으로 공존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따라서 힌두사회에서 여성은 이중적 이미지 즉 이로운 동반자인가 하면 파괴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파악되기도 한다. 힌두여성에 대한 이러한 양면적인 이해는 힌두여신 개념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강력한 힘을 지니는 여신은 창조적이고 선하며 이로운 존재인가 하면 위험하고 파괴적인 존재로도 인식된다.

11) 힌두 여신을 구분하는 이와같은 틀은 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나 이 구분에 적용하는 용어사용에는 다소의 차이가 나타난다. 예컨대 배우자 여신(Spouse Goddess)과 데비(Devi, 여신) 또는 산스크리뜨화된 여신(Sanskritic Goddess)과 산스크리뜨화되지 않은 여신(non-Sanskritic Goddess) 그리고 정통여신과 비정통여신 등이 사용된다. 앞의 용어는 남신의 배우자가 되어 정통 힌두교에 완전히 편입된 여신을 의미한다면 뒤의 용어는 정통으로 편입된 정도가 약하거나 편입되지 않은 여신들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통화된 여신과 비정통여신 또는 배우자 여신과 독립적 여신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힌두사상에 의하면 위대한 여신인 마하데비(Maha Devi)는 우주의 창조력이자 생명 에너지인 삭띠(Shakti)의 상징화이다. 이 삭띠는 경우에 따라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한 힘이다. 따라서 위대한 여신은 창조의 원천인 무한한 창조력이자 우주의 유지력인가 하면 무시무시한 파괴력이기도 한 양면성을 지닌 존재이다. 그런데 이 양면성은 남성이 여성의 힘을 통제하는 일과 밀접히 관련된다. 힌두전통에서 이 힘은 남성적인 것과 더불어 있을 때는 이로운 힘으로 인식되나 홀로 존재할 때는 악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남신들의 배우자로 그들의 통제 하에서 협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쉬바의 부인 사띠(Sati)나 비슈누의 부인 락슈미(Lakshmi) 그리고 브라흐마의 부인 사라스와띠(Saraswati) 등이 생산, 창조, 사랑, 용납, 양육의 속성을 지니는 풍요롭고 자애로운 부여자(bestower)로 인식된다면 표면적으로는 쉬바의 부인이기는 하지만 독립성이 강한 두르가(Durga)나 깔리(Kali) 등은 중오, 거절, 파괴의 속성을 지니는 도전적이고 위험한 파괴자로 인식된다. 즉 인도문화에서 여성의 힘은 강력하고 신성한 것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결국 힌두 여성성의 두 측면은 여신상징의 이 이원성에서 명확히 표상화되고 있다.

수잔 웨들리는 문화와 자연의 이분법적 구도로 이 두 측면을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힌두 사상에서 여성은 삭띠(우주의 생성원리, 창조적 에너지)이자 뼈라끄리띠(Prakriti, 우주의 미분화된 물질, 자연)의 구체화인데 여성이 흙이라면 남성은 씨앗을 상징하고 둘의 결합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 또 남성이 정신과 문화를 의미한다면 여성은 물질이자 자연이다. 여성은 창조 또는 생산력 곧 에너지이자 미분화된 자연의 두 측면을 지닌다. 그런데 경작되지 않은 자연은 위험스럽다. 따라서 여성이 힘과 자연이 결합된 위험스런 존재로 이해되는 것이 힌두여성 관념의 토대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생산성을 의미하는 性(섹슈얼리티)이 남성에 의해 통제되게 되면 여성은 성장, 풍요, 번영을 가져다 주는 이롭고 호의적 존재로 기능하나 남성의 통제를 벗어날 경우 파괴적이고 사악한 위험한 존재로 기능한다.¹²⁾ 즉 여성의 두 측면이 힌두 여신상징체계에서 배우자화된 정통여신과 독립적인 비정통여신으로 상징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2. 힌두 여신의 두 범주 : 배우자 여신과 독립적 여신

12) Susan Wadley, 앞의 논문, 25-27쪽.

힌두 여신의 이러한 이중적인 상징화는 인도인들이 여성의 지닌 다양한 속성과 관련지어 여성성을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중적인 여신 상징체계가 형성되게 된 보다 주요한 요인은 힌두교의 역사적인 전개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힌두 문화는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들어와 정착시킨, 가부장적 성격의 브라흐만교 전통과 여성원리가 중심역할을 하는 토착민들의 여신신앙 전통이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형성되어 왔다는 견해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³⁾ 특히 서사시 시기(대략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후 300년 사이)에 이루어진 힌두교의 신학적인 종합화는 여성원리의 이중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다. 브라흐만교의 초기 문헌인 베다시기 무렵부터 주변화되기 시작한 토착 여신들이 종합화 시기에도 정통 종교삶에서 계속해서 배제되긴 했지만 몇몇 주요 여신들의 경우는 정통 힌두신들의 배우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힌두 판테온에 편입되었다.¹⁴⁾

종합화 과정을 통해 고대 베다의 신들이 전면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신들이 힌두 신앙의 주요 신들로 등장했는데 그들이 바로 우주의 창조주인 브라흐마(Brahma), 유지자인 비슈누(Vishnu), 파괴자인 쥐바(Shiva)로 구성되는 이른바 ‘힌두 트리니티’이다. 이 신들은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후 300년 사이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브라흐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고 비슈누와 쥐바가 힌두교의 2대 신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지역여신들을 이를 남신의 배우자 여신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힌두 종합화의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 했다.¹⁵⁾ 그 결과 세 남신에게 각각 배우자가 주어졌다.

브라흐마의 부인인 사라스와띠(Saraswati)는 본래 베다에 나오는 강의 여신으로 라자스탄에 있는 사라스와띠 강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강의 여신으로는 정화와 풍요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이 여신은 말(언어)을 창조했다고 믿어진다. 현재는 언어, 예술, 음악 그리고 학문의 여신으로 승배되고 있다. 다른 배우자 여신들에 비해 자율성을 좀더 지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브라흐마의 지위가 점차 약화된데 원인이 있어 보인다.¹⁶⁾ 또한 이 신은 과거에는 사원무희인 데바다시들이 숭배하던 신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이 신이 학문과 예술의 여신인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

13) 즉 인도문화를 크게는 토착문화와 아리안 문화간의 융합의 산물로 본다. Devaki, Jain, ed., 앞의 책, 43쪽 참조. 일부 학자는 이를 범어 전통(아리아 전통)과 비범어 전통(토착 전통)의 결합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Seemanthini Niranjan, 앞의 논문, 254쪽 참조.

14) Lynn E. Gatwood, *Devi and The Spouse Goddess : Woman, Sexuality and marriage in India* (Delhi: Manohar, 1991, 초판 1985), 41쪽.

15) Gatwood, 앞의 책, 50쪽.

16) A. Basham, *The Wonder That Was India*(New York, 1954), 312쪽.

비슈누의 배우자인 락슈미(Lakshmi)는 인도에서 가장 인기있는 여신 가운데 하나로 남신의 통제하에 놓인 대표적인 여신이다. 정숙함과 덕스러움을 표상하는 락슈미는 번성함, 복지,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성숙한 미의 여신으로 묘사되어 왔다. 초기에 락슈미는 성장과 풍요와 관련된 여신이었다. 그러나 후기 서사시 시기(4세기) 아래 비슈누의 부인이나 배우자로 나타난 이후는 이러한 성격이 약화되고 세상을 유지하는 비슈누의 역할을 돋는 측면이 강화되었다. 락슈미는 이 보조역할에서 남편을 주인으로 받들며 충실히 순종하는 전형적인 힌두 부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정통관점에서 볼 때 가정에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락슈미는 순수하게 이로운 여신이다.

상층 카스트 여성들 사이에서 이 여신이 숭배되고 또 축제가 바쳐지는데, 매년 거행되는 디왈리(Diwali) 축제가 그 예이다. 상층 카스트의 부인들은 가정의 불운을 막기 위해 락슈미가 비슈누에게 바친 헌신과 복종행위를 그대로 따른다. 락슈미의 종속적인 지위는, 그녀가 독립적인 숭배대상이었던 적이 없고 비슈누의 보조적인 신으로 널리 숭배되어 왔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¹⁷⁾ 락슈미는 비슈누와 마찬가지로 비슈누의化身인 여러 신들의 부인으로化身해서 라마(Rama)의 부인인 시따(Sita), 크리슈나(Krishna)의 부인인 라다(Radha)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쉬바의 부인들에 비해 상당정도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숭배 대상이다. 특히 시따는 순종적이고 충실한 아내를 상징화시킨 대표적인 예이다.

브라흐만교 계열의 정통 힌두교에서 쉬바의 부인은 사띠, 빠르바띠(Parvati), 두르가, 깔리, 움마(Uma)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제한적으로 이로운, 배우자 여신들로 첫 부인인 사띠의 화신들로 믿어진다. 사띠는 남편인 쉬바의 명예가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모독된 것에 분노하여 희생제의 불에 자신의 몸을 던져 자신을 희생시킨 여신이다. 이 사띠의 가장 유명한化身이 빠르바띠이다. 빠르바띠는 낮은 카스트들이 숭배하던 지역 여신들이 배우자화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힌두 판테온으로 편입한 대표적인 예로 지적된다.¹⁸⁾

초기에는 쉬바나 빠르바띠(Durga, Kali, Uma도) 모두 그들이 부족이나 낮은 계층과 강한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힌두 판테온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힌두 서사시인 『마하바라타』는 움마를 유목·채집 집단의 여성으로 언급한다. 또 이 서사시는 정통 브라흐만교와 토착신앙과의 갈등을 빠르바띠의 아버지인 브라만 성

17) Basham, 앞의 책, 316쪽.

18) Gatwood, 앞의 책, 109쪽.

자 닥샤(Daksha)와 쉬바 그리고 빠르바띠와의 갈등 이야기로 신화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풍요의 신이던 쉬바가 힌두 판테온에 수용된 후에는 탈속적 성격의 요가 신의 성격이 보다 강조되므로써 쉬바는 양면적인 두 성격을 지니는 대표적인 힌두 신으로 나타난다. 『뿌라나』에서(Brahmavaivarta Purana, Book 1. 6.6-8) 요가 신으로서의 쉬바는 빠르바띠가 그를 유혹하여 세속에 매이게 한다며 그녀를 처음에는 거부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자 빠르바띠도 쉬바를 따라 금욕적 수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결국에는 세상의 유지를 위해 쉬바가 그녀와 결혼하여 자손을 낳게 된다. 상층 카스트의 축제인 티즈(Tij)에서 쉬바와 빠르바띠의 이 결혼이 기념되는데 티즈 이야기에서 쉬바는 빠르바띠의 샤띠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녀와 결혼한다. 이 축제에서 상층 카스트의 여성들이 남편의 장수와 번영을 위해 단식하는 관행에서도 여성 性의 통제관념이 나타난다.

한편 5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일부 여신들은 배우자화된 여신들과는 달리 보다 독립적이고 중심적인 존재로, 독자적인 숭배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이 여신들은 남신을 도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신들을 이용할 정도로 강한 성격을 지닌다.¹⁹⁾ 형식적으로는 쉬바의 부인인 두르가 혹은 깔리가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여신이다. 깔리나 두르가는 독자적으로 숭배 되기 때문에 배우자인 쉬바와의 관계는 상당히 약한 편이다. 이러한 독립적 여신인 마하데비는 중세에 융성한 밀교에서 특히 그녀의 강력한 파괴적 에너지가 강조되었다. 마하데비는 좌도밀교에서 남신보다 우월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깔리나 두르가로 나타난다. 이들 여신들의 성격은 매우 복합적이다. 윤리적으로 다소 양극적인 성격을 띠어서 창조적인가 하면 주로는 거칠고 파괴적이며 성적으로 강력한 성격을 지닌다.

초기에 깔리는 중요성을 떠지 않는 여신으로, 배우자화되지 않은 쉬바의 짹이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여신이 이 거칠고 성적으로 강력한 깔리로 표상화되고 많은 경우에 깔리는 남신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신으로 취급된다. 남신과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면 늘 쉬바와 관련된다. 그러나 이 때에도 빠르바띠와는 달리 쉬바가 우주의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스럽고 파괴적인 행위를 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깔리의 속성은 무시무시한 외모로 형상화된다. 그녀는 검은 피부에 벌거벗고 긴 머리를 내려뜨리고 있고 두개골로 된 목걸이와 때로는

19) A. G. Mitchell, *Hindu Gods and Goddess*(New Delhi: UBSPD, 1996, 초판 1992), 34쪽.

시체로 된 귀고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깔리는 주로 전쟁터나 화장터에 나타나는데 그녀는 노획물의 뜨거운 피를 마신다. 그래서 그녀는 칼과 피를 담는 단지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실제로 신봉자들은 그녀에게 희생제물을 바친다. 깔리는 인도 전역에 걸쳐 숭배되나 특히 벵갈 지역에서 인기가 있다.

두르가는 비슈누의 부인인 락슈미와 마찬가지로 가장 인기있는 힌두 여신 가운데 하나이다. 그녀의 신화적인 역할은 우주의 안정을 위협하는 악마들을 물리치는 일이다. 때문에 두르가는 많은 손에 무기를 들고 사자 위에 앉아 있는 전쟁신으로 묘사된다. 두르가가 쉬바의 부인으로 역할할 경우 가정적인 성격을 띠어서 때로 빠르바띠와 동일시 되기도 한다.²⁰⁾ 두르가의 역사적인 기원은 인도 토착문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화적인 기원으로 보면 두르가는 남신들이 패퇴시킬 수 없는 악마가 우주를 위협하는 위기상황에서 여신이 지닌 강력한 힘으로 악마를 물리치도록 남신들이 간청한 결과 나타났다. 그녀는 전쟁터에서 악마에 대항해 싸울 때 많은 여성 보조자를 창조해 내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깔리이다. 두르가는 여러 면에서 전통적인 힌두 여성 이미지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남신에 복종적이지도 않고 가정일을 돌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남신들의 힘을 이용한다. (열을 가해 두르가를 창조하기 위해 남신들은 자신들의 내적인 힘인 불을 포기했다.) 독립적인 전사로 전쟁에서 남성과 대항해 싸우는 그녀의 역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여성의 일반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남성보다도 우월한 역할을 담당한다.²¹⁾ 남성의 보호와 이끔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두르가의 모습에서 전통 힌두율법서가 제시하는 여성에 대한 전형적인 견해에 도전하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비전을 읽을 수 있다.

한편 힌두교의 지역여신들은 가정신에서 마을과 지방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겟우드는 지역 여신(데비)들을 배우자화 정도에 따라 세 범주로 나누고 있다. 즉 뚜렷하게 배우자화 되지 않은 여신, 대부분의 마을과 지역 여신들과 페리야ல라 이야따르(Periyapalaiyattar)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 의례적으로 결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배우자화되나 본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여신의 성격을 지니는 데비, 여기에는 마을여신인 셀리얌만(Seliyamman)과 지역여신인 미나시(Minakshi) 등이 속한다. 끝으로 배우자 여신과 독립적 여신의 두 측면을 모두 지니는 부분적으로 배우자화된 여신 등이 있다. 이들은 피상적으로 정통에

20) D. Kinsley, *Hindu Goddesses*(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8), 95쪽.

21) Kinsley, 앞의 책, 97쪽.

편입된 유사-정통적(Quasi-Orthodox) 여신들이다. 가정신인 뿐바다이(puuvaaDai)와 마리야파이(mariyattai) 그리고 마리암만(Mariyamman)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²²⁾ 이들 신들은 독립적 여신의 성격을 보다 많이 띤다. 대체로 독립적인 여신과 정통화되지 않은 지역 신들은 대부분 낮은 카스트와 여성들의 숭배대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힌두 여신의 두 범주 즉 정통 힌두교에 편입된 배우자 여신과 독립적인 비정통 여신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배우자화된 여신의 경우 결혼이 매우 중시되고 남편을 보좌하는 순종적인 부인역할이 강조되는 반면에 비정통 여신은 결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정통여신과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여기서 정통적인 결혼형태의 존재여부가 두 범주의 여신들을 구분하는 핵심기준임을 알 수 있다.

IV. 힌두 여신 상징과 여성의 지위

1. 힌두 여신상징체계와 여성의 이중적 지위

힌두 여신상징체계가 제시해 주는 여성의 본성에 대한 이와같은 두 가지 개념은 힌두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도 나타나서 남성에 의해 통제되는 선하고 충실하며 순종적인 부인역할과 풍요로우나 위험하고 통제가 쉽지 않은 어머니역할에서 가장 두드러진다.²³⁾ 남성지배적인 문헌들이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을 여성의 규범으로 강조하는 반면에 민속과 구전전승은 주로 어머니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²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고전 힌두전통에서 제시되는 여성 행위규범의 중심주제는 남성이 여성과 그 힘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통제의 유대를 깨지 않는 여성이 이상적인 여성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규범은 여신 상징체계에서도 나타난다. 남신과 정통적인 결혼을 한 경우, 여신은 성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이나 결혼이라는 통제수단을 통해 자애로운 존재로 전환된다. 풍요와 부의 여신인 락슈미가 이러한 배우자 여신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여신은 금욕적이고 性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주로 이들 배우자화된 여신을 숭배하는 상층 카스트의 여성들도 성욕의 통

22) Gatwood, 앞의 책, 137, 156-58쪽.

23) Susan Wadley, 앞의 논문, 29쪽..

24) R. Ghadially, 앞의 책, 34쪽.

제를 미덕으로 간주한다.²⁵⁾ 배우자 여신과는 달리 독립적인 여신은 남신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적인가 하면 파괴적이기도 하고 성적으로 매우 강력하다. 따라서 이 신앙형태의 性상징체계에서는 제의적인 성교와 에로티시즘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이 여신은 주로 낮은 계층의 여성들이 숭배하는데 그들의 性에 대한 태도 역시 비교적 자유롭게 나타난다.

남녀의 성역할에서도 두 범주의 여신은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들의 삶도 이 두 여신 유형이 나타내는 차이에 상응한다. 배우자 여신의 경우 남신이 훨씬 우월한 존재로 그의 역할은 해탈을 추구하는 내세지향적인 것이다. 이에 비해 여신의 역할은 현세적인 것으로 가정 특히 남편을 비롯한 남성들의 건강과 풍요를 담당한다. 이 여신들을 신봉하는 상층계층의 여성들도 그 역할이 가정에 국한되는 등 남성에 비해 열등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성차별과 기능적 구분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정결함과 오염의 의례적 위계체계에서 여성은 월경, 출산 등 신체기능의 오염 가능성 때문에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된다. 이것이 여성을 聖보다는 俗의 영역에 속하는 존재로 보는 견해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부와 자손의 번창 등 현세적 생명력의 증대를 가져다 주는 길함과 불길함의 비위계적인 원리면에서 보면 달라진다. 결혼한 여성의 역할은 길함의 담지자이다. 그러므로 결혼한 여성에게 부과되는 중요성은 조화로운 삶의 촉진자이자 유지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서 나온다.²⁶⁾

반면에 독립적인 여신은 연인, 배우자, 남편, 아들, 남형제 등과 같은 남성 상대자들과 동등하거나 때로는 우월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남신과 여신은 풍성한 수학

25) 겟우드는 이러한 여신이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잠재되어 있는 위험하고 악의적인 본성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형태의 여신이 종종 독립적인 여신으로 등장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배우자(Sanskritic) 여신과 독립적인 (non-Sanskritic) 여신을 전적으로 이로운 존재와 두렵고 악의적인 존재로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의 이론은 힌두 여신상징체계에 대한 오해라고 주장한다. 즉 그는 밥이나 웨들리 같은 학자들이 여신들의 속성을 남성에 의한 여성의 통제를 의미하는 결혼여부에 따라 남성에 의해 통제되는 배우자 여신(락슈미)과 통제되지 않는 독립적 여신(깔리)을 대립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격을 부와 행복의 부여자와 파괴자로 규정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구분이 산스고리뜨화된 배우자 여신 상징체계를 설명하는데는 적절하나 깔리와 같은 산스고리뜨화 되지 않은 여신들에게 적용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여신들은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이고 이중적 본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즉 락슈미가 결혼을 통해 온화하고 이로운 신으로 완전히 전환된다거나 깔리나 기타 모신들은 냉소적인 신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깔리의 궁정적 측면과 락슈미의 잠정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비슈누파 밀교에서 락슈미가 쑥띠와 동일시되는 것도 그러한 구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Gatwood, 앞의 책, 108-113쪽.

26) Seemanthini Niranjana, 앞의 논문, 291쪽.

이나 질병의 방지 등 현세적인 풍요의 기능을 행한다. 이러한 성역할의 동등성은 여신숭배와 관련된 사회관계에도 반영되어 이 여신을 숭배하는 낮은 계층에서는 비교적 남녀의 평등성이 나타난다. 즉 낮은 계층의 여성들은 상대적인 평등성을 누리고 가정이나 사회적 행위에서 남편과의 역할교환이 이루어 진다. 이 점에서 겟우 드는 인도여성에 대한 약하고 의존적이며 도덕적으로 이중적이라는 일반적인 진술들은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며 성적으로 표현적인 낮은 여성들의 실제 삶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불일치는 상층 카스트의 여성들과 정통 여신들에 초점을 맞추고 수드라나 불가촉천민 여성들과 비정통 여신들이 간파되어온데 그 원인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로 인해 인도 여성성의 의미가 잘못 이해되어 왔다는 것이다.²⁷⁾ 배우자 여신이 가정의 번성함과 건강 등 가정사에 이로운 존재로 인식되고 보다 높은 카스트의 여성들이 숭배하는 대상이라면 독립적인 여신의 경우는 전마을 공동체의 건강과 부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로 낮은 계층의 여성들의 숭배대상으로 나타난다. 둘의 공통점은 여성을 풍요의 상징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 깊은 간격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상반되면서도 보완적인 여성원리에 대한 두 다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결혼과 여성의 지위

종교 상징주의와 문화 상징주의에서 결혼은 여성의 위험한 힘을 제압시켜 번성함의 근원으로 전환시키는 도구로 나타난다.²⁸⁾ 앞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지금까지의 고찰에서도 두 범주의 여신들을 나누는 기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혼을 통해 여성과 여성의 힘이 남성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느냐의 여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뿌라나』 등의 종교문헌에 규정된 여성행위 모델에 이 개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에 근거하면 여성은 그 본성이 사악하고 벤더스럽고 탐욕스럽기 때문에 남성의 통제와 지배가 필요한 존재로 남성에 대한 복종과 충성이 여성의 의무이고 자신의 전생애를 남성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결혼을 통해 여성의 힘이 가정에서의 부인과 어머니의 지위와 역할로 조정된다. 여기서 여성의 창조적 에너지는 가정의 번영과 풍요를 증진시키는 조화력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결혼한 여성의 조화롭고 생산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결혼한 여성은 이로움, 번영, 풍요의 길한 표징으로 존경받

27) Gatwood, 앞의 책, Preface.

28) R. Ghadially, 앞의 책, 34쪽.

는다. 그러나 결혼, 이혼, 상속, 재혼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여성의 차별적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힌두 종교 상징주의에서 여성은 이상화시키는 것이 곧바로 실제 삶에서의 여성의 높은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남성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자율적 힘(생산력)인 샥띠를 지니는 독립적인 여신(비정통 지모신과 지역 여신들)은 호의적일 수도 악의적일 수도 있는 존재로 이해된다. 이들은 공동체의 건강과 부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들이다. 그러나 강력한 그녀의 힘이 통제를 벗어나 있으므로 위험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은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고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존경받는다 해도 남성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풍요력은 사회분열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힌두 신화에서 남성의 통제에서 벗어난 여성원리는 제어할 수 없는 힘과 무질서한 에너지의 상징인 깔리로 표상된다. 통제되지 않은 깔리는 파괴력을 상징화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여성의 창조력은 남성과 조화를 이를 때만이 이로운 것으로 간주되고 남성과 분리되어서는 위험하고 해로운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사회적인 관계를 통하여 여성의 위험한 힘을 억제시키려 한다. 즉 결혼을 통하여 여성의 힘을 남성이 통제하므로써 여성은 위험한 존재에서 창조적이고 이로운 존재로 전환시키고 남성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인도사회에서 제시되는 이상적인 여성상은 이러한 여성 개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전에 따르면 여성은 남편을 신으로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하며 결코 독립을 탐하지 않고 남편이 승인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여성의 행위규범을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 종교문헌들의 지배적인 관점은 역시 여성의 본성을 기반적이고 사악한 것으로 이해하고 특히 여성의 감각적인 감성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마하바라타). 또한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로 비난하고 일관성 없고 변덕스러운 존재로 강조하기도 한다(마누, 9.2 ; 9.15). 따라서 여성의 性은 위험한 것이므로 남성이 여성과 그녀의 힘을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해 진다.

전통 힌두사회에서 남성에 의한 이러한 여성의 통제는 절대적이어서, 이 통제의 유대를 깨면 심하게 처벌받았다. 종교문헌들은 여성의 통제와 복종을 규정하면서 아버지나 남편에게 복종적이지 않고 충실하지 않은 여성의 비참한 来生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예컨대 『마누법전』(5. 165)은 남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여성은 자칼의 자궁으로 들어가고 질병에 시달린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상적인 여성은 이 통제를 깨지 않는 여성이다. 또한 『가루다 뿌라나』(Garuda

Purana, 108)는 남편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집안일의 총명한 관리자가 진정한 부인이고 이를 행하는 것이 여성의 종교적 의무임을 강조한다. 결국 여성은 주로 남편과 가정사와 관련하여 정의되고 있고 여성이 자신을 달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남편을 신으로 모시고 충실히 봉사하는 부인역할로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인도인들에게 너무도 친숙한 시따나 사비뜨리 같이 충실하고 순종적인 아내상이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정형화되어 왔다. 이외는 달리 힌두법전에 어머니, 딸, 여형제 등, 기타 여성역할들은 정형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어머니 역할이 중시되기는 하나 이상적으로 정형화된 어머니상은 찾아보기 힘들다.²⁹⁾ 이는 인도사회에서 어머니 역할이 이상적인 행위로 주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내로서의 여성은 남성의 통제 아래 있는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존재라면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생산과 양육을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이긴 하나 남성의 통제에서 보다 자유로운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수잔 웨들리는 힌두 여성의 어머니로서 개념화될 때는 의지가 강하고 자아정향적이고 자부심과 위엄이 있다면 부인으로서 개념화될 때는 유순하고 약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어머니 역할을 부인 역할 아래 포함시키므로써 어머니를 가부장적 가정에 협동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이다.³⁰⁾ 그렇다 하더라도 인도문화에서 여신신앙이 지속적이고도 풍부하게 나타나온 사실이 뒷받침해주듯이 모성은 인도인들의 의식 속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도 여성은 아내로서는 거의 완전한 복종을 해야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을 통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아내로서의 여성은 아들을 낳은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시어머니로서 그 지위가 향상되게 된다.³¹⁾

29) 수잔 웨들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시누와 올케와 같은 여성 간의 관계는 민속과 구전에서는 일반적인 주제이나 권위 있는 종교문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이 두 관계가 여성복지에 핵심적이나 남성들에게는 별관심사 아님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Susan Wadley, 앞의 논문, 29-30쪽.

30) Dhruvarajan Vanaja, "Religious Ideology, Hindu Woman, and Development in India", in *Journal of Social Issues*, 1990 가을호, 63쪽에서 재인용.

31) 한 연구가 보여주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감정 관계지수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로스는 조사를 통해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감정관계 지수가 가장 높아 115이고 그 다음이 남매사이 90, 형제간 75, 부자간 74, 부부사이 15, 자매사이 5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D. L. 카모디, 강돈구 옮김, 『여성과 종교』(서울: 서평사, 1992), 57쪽 참조.

3. 이상적인 힌두여성의 규범: 빠띠브라따

그러나 힌두 사회가 보다 중요한 여성의 규범으로 제시하는 것은 역시 남편에 절대적으로 충실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이다. 이러한 남성 종속적인 여성의 지위는 빠띠브라따(pativrata)로 이상화된 힌두 여성개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빠띠쁘라따는 남편을 신처럼 모시는 이상적인 아내이다.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 그리고 정절은 아내의 중요한 덕목이다. 남편승배를 의미하는 힌두 이데올로기인 빠띠브라따는 여성의 지위를 남편에 복종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이 이념의 가르침에 따르면 여성은 남편에 대한 충실한 봉사를 해야만이 현생에서는 의미와 만족을 찾고 내세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고전 힌두교의 여성이해는 여성은 악업의 결과로 태어난 존재이므로 현세에서는 구제될 수 없고 남편에게 순종적인 좋은 아내가 되어 선업을 쌓아 내세에서 남성으로 태어나야 해탈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힌두 사회는 남편에게 신처럼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강조하는 남성중심적인 이념인 이 빠띠브라따 개념을 통하여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와 역할을 이상화시키고 확고히 제도화시켰다. 빠띠브라따는 힌두 여성들로 하여금 복종적이고 의존적인 지위를 채택하도록 고무시켰다. 그리하여 남편과 가족을 자신의 종교로 삼아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인상이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 여성상은 설화나 신화 등을 통하여 이상화되고 여러 의례를 통하여 재강화되었다. 예컨대 인도의 2대 서사시 가운데 하나인 『라마야나』의 여주인공인 시띠는 빠띠브라따의 전형적인 예로서 이상적 여성에 대한 힌두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에 헌신적이고 충실한 여성으로 인도인들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여성의 전형으로 칭송되어 왔다. 이러한 여성상은 전카스트의 여성들에게 적용되어 인도 여성들이 의존적인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금도 교육과 직업선택의 기회가 보다 많이 주어지는 도시의 중중, 중상 계층의 여성들까지도 이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바나자(Vanaja)는 현대 인도의 발전노력은 남성중심적인 종교이념인 이 빠띠브라따로 해서 여성을 돋느데 대체로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그 까닭은 이 이데올로기는 힌두 여성으로 하여금 복종적이고 의존적인 지위를 채택하도록 고무시켰는데 권력과 특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 자신들에게 이로운 이 이념을 바꾸려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²⁾ 결국 힌두신앙과 사회제도가 인도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규정

32) Dhruvarajan Vanaja, 같은 논문, 57쪽.

해온 여성개념에 이념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재강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V. 여신상징의 재해석을 통한 새로운 모색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인도인들의 이중적인 여성관념이 두 범주의 힌두 여신상징으로 표상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이 종교적 믿음과 관행 그리고 이에 근거하는 관습을 통하여 정당되고 유지되는 측면을 살펴 보았다. 배우자 여신과 독립적 여신으로 상징화되는 이중적인 힌두 여성관념은 인도문화가 아리아 문화와 토착문화가 융합되어 형성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해가 용이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개념이 일반적인 인도여성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³³⁾ 다만 아리아 문화에 뿌리를 두는 브라흐만교(정통 힌두교)가 제도화와 관습화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규정해 왔다면 토착문화의 여신신앙 전통은 제도화나 관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강력한 종교문화적 토대를 형성하면서 인도인들의 의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인더스 문명에서 발굴된 유물에서 여신승배와 관련된 많은 상들과 쉬바의 원형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인더스 이전과 인더스 문명시기에 여신들이 숭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리아인들이 인도로 들어온 초기 베다시기에 이들 여신 중 일부가 아리아 신들의 배우자들로 종속화되었고 후기 베다시기에 여성의 지위도 결국 이러한 이념적 변화를 따라갔다. 그리고 기원전 2, 3세기 무렵에는 브라흐만교가 불교나 자이나교 등 비정통 종파들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화되기는 했어도 대중들 사이에 여전히 존속되고 있던 여신신앙과 새로운 신학적 종합을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등장한 정통 힌두교에서 여신들의 배우자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상층 카스트 여성들은 새로운 가치와 규범들을 통해 점차 정통 결혼형태에 묶이게 되었다.³⁴⁾

33) 힌두교는 다양한 종교전통과 사상학파 간의 결합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크게는 침입자인 아리아인들의 전통과 인도 토착민들의 전통의 융합으로 본다. 이를 학문적인 용어로는 아리안 문화와 비아리안 문화 또는 지배자들의 언어인 산스크리트를 사용하여 산스크리트 전통과 비산스크리트 전통 등으로 표현한다.

이후 고전 굽타왕조 시기 동안, 낮은 계층과 부족민들 사이에서 계속 숭배되던 배우자화되지 않은 여신들이 괴상적으로 배우자화된 여신(마하데비) 형태로 재등장했다. 정통 힌두교의 지배자들은 영토의 확보와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낮은 계층의 신앙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시기에 마하데비는 밀교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다.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온 토착 여신들의 이러한 배우자화 과정은 토착종교의 지배종교로의 편입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종교 상징체계에서 남신에 종속적인 배우자 여신과 보다 독자성을 지니는 대조되는 여신으로 상징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신 상징체계는 여성에 대한 인도문화의 이중적인 관념을 상징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하층 여성의 구별되는 경제, 사회, 종교적 삶과도 상응된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모순적인 태도는 주로 혈통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여성의 재생산 과정을 긴밀하게 통제하려는 상층 카스트에서 두드러진다.³⁵⁾ 사실 여성에 대한 인도인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믿음의 궁극적인 토대는 여성의 생식력 그 자체가 아니라 재생산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모성적 풍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관점과 함께 공존한다는 점이 모순적으로 보인다. 종교 상징주의에서 여성은 풍요나 모성과 연관짓는 것은 그 문화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역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출산과 재생산의 주요 담당자인 여성은 가계체계를 지속시키는데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또 결혼과 친족교환에서의 핵심적 역할로 해서 여성의 중요성이 변화하기도 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전환은 어머니가 되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 초기의 복종적 역할과는 달리 여성의 파워가 점차 증가하는 경우이다. 이렇듯 여성이 가계체계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복종적인 지위는 모순적으로 나타난다.³⁶⁾

종교와 여성의 관계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은,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통종교들은 여성의 열등의식을 고착시키기 위해 여성의 교육통제를 통해 여성의 지적성장을 금지시키고 여성에게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만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활동영역을 가정에 국한시키는 등 여성의 종속적이고 비독립적인 지위를 강조해왔다는 것이다.³⁷⁾ 이렇듯 종교를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로 보는 견해가

34) Gatwood, 앞의 책, 183쪽.

35) Gatwood, 같은 책, 183~84쪽.

36) Seemantana Niranjara, 앞의 논문, 290쪽.

지배적인 경향이긴 하나 종교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해서 단순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성과 관련하여 종교는 양면적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 즉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므로써 남성에 대한 종속을 합법화시키는 여성억압의 기능과 자기존중, 여성의 발달 그리고 정체성의 확립 등, 여성의 영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는 기능이다.³⁸⁾ 이러한 이유로 해서 가부장적 성격이 강한 종교문화권인 서구의 여성주의자들이 대부분 종교를 철저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파악하여 극단적으로는 종교의 폐기를 주장하는데 반해 이슬람 문화권과 힌두 문화권의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해방과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개념을 전통 속에서 이끌어 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는 남성종속적인 여성개념을 비판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성개념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여신신앙 전통의 여성개념에서 찾고 있다.³⁹⁾ 즉 독립적인 여신 이미지를 강조하고 재해석하므로써 여성에게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성개념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리들과 조쉬는 남성지배와 여성복종이 토착민(드라비다인)들이 지닌 여성력 원리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과 아리아인들의, 남성력 원리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간의 투쟁에서 아리아인들이 승리한 뒤에 나타났다고 주장한다.⁴⁰⁾ 그러나 아리아인들이 지배권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토착민들의 여신 신앙체계를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다. 인도에는 지금도 여신신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지역의 경우는 모계적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특히 깨랄라주, 이 주의 여성지위는 높다). 따라서 인도문화에서 여성은 서구와는 달리 여성에 대한 경멸보다는 여성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성에 의한 지배가 강조되고 남성에 종속되게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⁴¹⁾

앞서 힌두전통에서 여성의 아내로 개념화될 때는 온순하고 약하게 묘사되지만 어머니로 개념화될 때는 의지가 강하고 위엄이 있는 존재로 나타남에도 힌두전통은 어머니 역할을 부인 역할의 보조적인 것으로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가부장적 체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어머니로서의 여성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어머니 역할을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측면의 여성역할은 인도가 영국의 식민통치에 맞서 종교적

37) 카모디, 앞의 책, 18~21쪽.

38) 캐롤린 라마자노글루, 앞의 책, 240~41쪽.

39) Dhruvarajan Vanaja, 앞의 논문, 63쪽.

40) Dhruvarajan Vanaja, 같은 논문, 63쪽에서 재인용.

41) Dhruvarajan Vanaja, 같은 논문, 63쪽.

색체의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시킬 때 강조되었는데, 대중의 정서에 호소하여 그들의 힘을 독립운동에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써 깔리나 두르가 등의 모신상징이 사용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일부 학자들은 남성지배 사회인 인도사회에서 독립 이후 정치, 행정, 기타 고도의 전문적 분야에서 여성들이 놀랄만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이러한 여성들의 역할을 남성들이 관용적으로 수용하는 까닭을 이러한 문화적 유산에서 찾기도 한다. 그 예로 인드라 간디가 정치적인 지도자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어머니 여신 즉 두르가로 상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수잔 웨들리는 인드라 간디는 인도에서 여성의 지위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지적한다. 여성의 본성과 역할에 대한 힌두 믿음 안에 변화를 가능하게 할 이데올로기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독립적인 여신으로서의 여성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녀는 미국의 여성개념이 여성을 본래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것의 극복이 필요한 반면에 힌두 여성의 경우는 그들의 특성을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언급한다.⁴²⁾ 따라서 여성의 본성과 역할을 이중적으로 규정하는 힌두 여성개념 그 자체 안에서 인도여성을 위해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 Susan Wadley, 앞의 논문, 41~42쪽.